

2022 열린 인생 15.

이제 '임재'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에 머무는 이유)

[출애굽기 33: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중요한 인물이다. 여호수아는 언약의 성취이다. 모세는 비전을 보고 약속에 대한 언약을 받았다. 그러나 그 언약은 광야라는 훈련과정을 필요로 한다.

출애굽의 여정은 모세를 중심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은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조명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여호수아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 사명이 있으며, 목적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래서 인생은 여정이며 그 여정은 가치 있다.

꿈은 원석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원석은 다듬어진다. 처음 구원 받은 사람은 원석이다. 그 원석은 광야훈련학교를 통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진다. 태어남 자체가 목적인 모세는 광야를 통해 다듬어진다. 출애굽 초기의 모세와 광야를 통과한 모세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연결하여 보여준다.

[여호수아 1: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33:11]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

(1) 여호수아는 아들이다.

그는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수종자이다. 그는 아들이다. 성경에서 아들은 유업을 계승할 자를 말한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언약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언약의 아들에게 계승된다.

(2) 여호수아는 수종자다

모세의 수종자였다. 수종자는 섬기는 자를 말한다. 여호수아가 섬긴 사람은 리더 모세다. 모세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 시간의 법칙이 있다. 함께 있으면 닮아간다. 리더 모세를 가장 닮은 사람은 여호수아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계승되는 것을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가 모세를 닮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호수아가 있어야 한다.

모세의 비전은 여호수아를 통해 실체가 된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현실이 된다.

(3) 계승의 중요성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는다. 계승되고 연결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계승된다. 아브라함을 통해 부어진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권위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로 계승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승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그 말은 여호수아를 발견해야 한다는 말이다. 내 인생의 여호수아가 필요하다.

내 인생의 모세와 여호수아 : 모세 - 꿈과 비전 / 여호수아 - 성취

내 인생에도 모세와 같이 꿈과 비전의 스테이지가 있다면 그 꿈을 성취할 여호수아의 스테이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2.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 - 여호수아

[출애굽기 33:7]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출애굽기 33:8-11] 8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 모세의 삶 - 임재의 삶

*임재의 중요성 : 신앙은 임재 전쟁이다

무엇이 내 삶에 임재하고 있는가? 임재가 오늘의 '나'다. 귀신이 임재하면 귀신이다. 돈이 임재하면 그 사람은 돈이다. 음란이 임재하면 그 사람은 음란이다. 무엇이 임재하고 있는가? 임재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명확하다. 실재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다.

*'회막의 의미' (회막 중심의 삶)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다. (출33:7~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다. 그래서 그들은 회막으로 나아갔다. 놀라운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성전 중심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임재가 신앙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임재로부터 오는 기쁨, 사랑, 소망, 비전, 위로, 보호, 사명과 권능은 그 어떤 것 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임재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모세 :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 사람이다

[출애굽기 33:8-9] 8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임재의 삶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은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사역이 많고 할 일이 많은 모세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임재의 삶이다. 그 증표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려졌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있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처럼 처참한 예배는 없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스킬이 아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 임재가 있는 회막 중심의 삶에 임한다.

(2) 여호수아 - 회막에 거하는 삶

여호수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디서 여호수아를 찾을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세대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여호수아다. 리더다.

[출애굽기 33: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말씀이다.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일어나기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미래는 '임재' 전쟁이다. 악한 영의 임재가 있다. 악한 영의 임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뿐이다. 여호수아는 임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리더며 약속의 땅으로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3) 임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

성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돌파와 결과를 본다. 놀랍다.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다.